

로컬리더스

군산시 수송동 주민센터, 어린이 꿈과 희망 키우는 견학장소

군산시 수송동 주민센터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당복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 12명과 인솔교사 5명은 25일 수송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견학아동들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민원응대와 민원서류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복지혜택의 종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하반기 개별주택 특성조사

군산시는 2016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주택을 오는 27일까지 파악하고 토지현상, 방위, 도로 접면 등 토지특성 13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6개 항목 등 총 19개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절차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서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결정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군산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기준일 주민등록이 군산시에 되어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한하며, 이자 지원은 재학기간 동안 이뤄진다.
이자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군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 가능자는 2015년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비용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비 총 2억 4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설경민의원 발의로 지난 5월 20일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했으며, 6월 중 공포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주)미원상사 300억원·(주)양정바이오푸드 200억원

익산시 제3·4단 투자협약 체결

미원상사(주)(대표이사 홍창식)와 (주)양정바이오푸드(대표이사 김광래)가 2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이형규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미원상사(주)는 익산시 제3·4단의 10만829㎡ 부지에 2019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양정바이오푸드는 익산시 제4·5단의 3만9,002㎡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가 완료될 경우 21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원상사(주)는 국내 화학산업의 초창기였던 1959년에 창업하여, 기초화학제품의 생산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화학제품의 생산에만 사업을 집중해 온 국내 정밀화학의 대표기업이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계면활성제, 감광제, 자외선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익산공장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용 첨가제 등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주)양정바이오푸드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한 '해조살'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익산 제4·5단 부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주)양정바이오푸드에 따르면 해조살은



미원상사(주)(대표이사 홍창식)와 (주)양정바이오푸드(대표이사 김광래)가 25일 익산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이형규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용 첨가제 등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주)양정바이오푸드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한 '해조살'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익산 제4·5단 부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주)양정바이오푸드에 따르면 해조살은

살가루에 해조류를 첨가한 뒤 쌀도양으로 재가공한 것이며, 동물실험을 통해 비만억제, 혈당저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이미 버섯 등을 이용한 기능성 쌀이 시판되고 있으나 해조류를 이용한 것은 처음이며 쌀에 부족한 미네랄 성분을 추가하고 맛과 식감도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위해 중앙부처 방문

군산시가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세종 정부청사 주요 부처를 방문,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 협의의 활동을 펼쳤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방문한 문 시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SOC의 조속한 구축과 ICT 창조경제 사업,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등 주요 핵심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동서2축·남북2축도로 ▲새만금~대야간 철도 ▲새만금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등 조속한 SOC 구축을 요구하고, 창조경제에

부응한 개발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팜 조성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부지이전에 따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비용 증가와 관련한 국가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과 수협 수산물 처리장 신축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종 정부청사 내 여러 부처를 방문한 2017년 주요 신규 사업들에 대해 언급하고 부처사업에 밀려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표표를 상회하는 국가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앙부처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황등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조사선정

익산시가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황등지구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전체 628ha 중 잔여분 328ha가 2016년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돼 농경지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황등지구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전역국비사업인 2016년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후 첫 국비사업 확보 성과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돼 수습기간 지속되어온 황등, 임상동 상용동지역 농경지 628ha의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유수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황등면 요교주변 지방하천 탐천 및

기양천 합류지점 주변 농경지 628ha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수습기간 우기철 1월 60mm 이상 비가 오면 빈번히 농경지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익산시는 황등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황등면 요교상류 침수지역 300ha를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잔여분 황등 요교 하류지역 328ha는 이번 2016년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노력한 결과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인의 안전영농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 선출 귀추 주목

국민의당 3명·더민주 2명 거론... "중앙정치권 개입 안되고 자율에 맡겨야"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임기가 40일 가량 남은 가운데 하반기를 이끌 어갈 의장 후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원내 제1당인 국민의당 하반기 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자 내정과 내부경선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나, 후보자 내정의 경우 중앙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지방자치의 자율성 훼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후보자간 자율적인 조율이 뒷받침된 내정이 아니라면 후보자들의 반발에 따른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대 시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내정설로 인해 시의회 최다선인 A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당 의장후보로는 시의회 내 최연장자인 신경용 의원, 3선의 박정희 의원, 정길수 의원, 그리고 더민주 주당은 김경구, 김성근 의원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원내 제1당인 국민의당 하반기 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자 내정과 내부경선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나, 후보자 내정의 경우 중앙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지방자치의 자율성 훼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후보자간 자율적인 조율이 뒷받침된 내정이 아니라면 후보자들의 반발에 따른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대 시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내정설로 인해 시의회 최다선인 A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장단 선거는 중앙정치권이 개입해선 안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군산시의회 의장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의회 내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따져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단체 경선은 후보자간 경쟁이든 시의회 내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는 중앙정치나 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의 인물됨을 따져 선출하는 여론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20개업소 적발

익산시는 5월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0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위반 유형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합리면의 개인사업장과 한일염의 I사와 T사를 비롯해 폐수 배출사업장의 경우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월성동의 시와 평화동의 S사 등 5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했다. 또 기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5개소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

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업소 이외의 가족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환경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은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점검시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영영요령 등에 대하여 기술자원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Advertisement for Seeseri water filter. Title: (주)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Content: Clean UP, Why? '씨서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Homepage: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 Contact: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